

“100% 단결력”

코리아에프티지회 의견일치



코리아에프티지회의 난생 첫 파업투쟁, 뜨거웠다. 지회 조합원들은 신생노조로서의 여러 어려움을 뚫고 7월 초 파업에 나섰다. 교섭 석 달 간 안을 내지않던 사측은 부분파업, 태업 등 연이은 투쟁에 두 차례에 걸쳐 임금인상 안을 낼 수 밖에 없었다. 7월 27일, 기본급 월 108,480원 (호봉승급분 포함 119,780원) 인상과 기타 일시금 등을 지급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연초부터 갈등을 빚었던 노사협의회는 지회를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휴게실 설치와 지회 사무실 확장 등 추가적인 합의도 이뤄졌다.

주변 사업장들은 단결력이 대단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지회 조합원들은 “투쟁 열기에 비해 아쉽다”는 의견도 많았다. 타결안이 높기는 하지만 애초에 너무 낮은 임금수준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하지만 회사의 통제관리 시스템을 뚫고 당당하게 첫 파업을 했고, 과반이 안 되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동료의 삶을 높이는 금속노조의 힘을 보여줬다. “아줌마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관리자들 행태 바꿀 것”, “어깨 펴고 일하게 된 게 좋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 크게 노동조합을 키울 계획을 논의하는 평가수련회를 8월 20일에 열 계획이다.



▲ 코리아에프티지회 2016년 임금교섭 의견일치 조합원 설명회에서 쟁대위원들이 조합원에게 감사와 사과를 담은 인사를 하고있다.

“할 수 있다”

말레동현화성지회 본격투쟁

말레동현화성지회는 8월 16일까지 17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울산과 화성에서 번갈아가며 매 주 교섭을 해왔다. 지회는 올 해 단협 개정에서 일방적 외주화 금지와 고용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조합활동시간과 전임자 확대 등 쟁점에 주력하고 있다. 회사는 외주화와 임금피크제 문제에는 안을 내지 않고, 조합활동시간과 임금은 찔끔찔끔 내고 있다. 5차에 걸쳐 회사가 제시안을 내는 동안 임금인상안은 시급 250원 인상에서 시작해 400원까지 왔다. 찔끔찔끔 올리고 올려도 작년 최저임금 인상폭에도 못 미치는 상태다.

금속노조로 전환한 첫 해인 작년에는 ‘처음이니까 기반을 만들자’는 목표로 금속노조 기초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올 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조합원 모두가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투쟁에 결합하는 분위기도 남다르다. 휴가 전까지 특근과 전업거부, 현장 선전전 등으로 몸을 풀던 지회는 휴가 후 본격적인 파업에 나섰다. 올 해 임단협 목표인 ‘금속노조다운 단체협약’, 뜻대로 쟁취하리라 믿는다.



▲ 8월 12일, 말레동현화성지회 조합원들이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현장에서 파업집회 중이다. 폭염 속 모퉁이 그늘아래 미소가 아름답다.

“시설조합원 해고 부당”

하이디스 중노위 승소

8월 9일, 하이디스지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이디스지회 청정라인(시설) 조합원 15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 4월 지노위에선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었다. 이상목 지회장은 “당연한 결과를 너무 오래 기다렸다”며 “이번 중노위 판정을 토대로 해고자 전원이 복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힘겨운 장기투쟁 중에도 언제나 응원하고 연대한 동지들에 대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 7월 28일에는 “휴가 전에 하이디스에 힘 싣고 가자”며 투쟁사업장공동투쟁에 함께하는 하이디스 조합원들을 만나러 지부 교섭위원들이 서울로 갔다. 이 날 대원안산지회가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은 투쟁기금 500만원을 하이디스지회에 전달했다. 휴가기간 중에는 기아차지부가 하이디스 거점을 방문해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대원평택지회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은 투쟁기금 280만원도 하이디스지회로 전달됐다. 하이디스지회는 중노위 승소를 발판삼고 연대의 힘을 날개 삼아 모든 조합원의 승리를 위해 투쟁을 이어간다.



▲ 중노위 승소 다음 날, 하이디스 서울동성장 수요 문화제에서 율동공연을 하는 조합원들의 밝은 표정에 모두가 힘이 난다.